



삼성전자, 세계 첫 51나노 16Gb 낸드플래시 양산



삼성전자가(www.sec.co.kr) 세계 최초로 51나노 공정을 적용한 세계 최대 용량의 16Gb 낸드플래시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8월 6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8Gb 낸드플래시를 양산한 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용량과 성능이 두 배 향상된 16Gb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이번에 양산되는 51나노 16기가 낸드플래시는 공정 미세화와 대용량화 실현은 물론, 대용량 구현은 용이하지만 빠른 읽기 속도 구현이 어려웠던 기존 MLC(Multi Level Cell) 낸드플래시의 약점을 보완했다.

이 제품으로 32GB 메모리 카드를 제작할 경우 DVD급 영화 20편이나 MP3 파일 8000곡, 일간지 200년 치 분량을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51나노 기술을 적용한 낸드플래시는 기존 60나노급 제품에 비해 60% 정도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며 “이번 51나노 제품의 양산 돌입은 최근의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LG전자, 아시아 시장에 '프라다폰' 공급 개시

LG전자(www.lge.com)가 아시아 시장에 '프라다폰'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시아 지역 기자단을 대상으로 출시 행사를 갖고, 홍콩·대만·싱가포르에서 '프라다폰(Prada Phone by LG, 모델명:LG-KE850)'을 본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전자와 프라다는 유럽 시장에 이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프라다폰'이 명품 휴대폰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와 프라다가 공동 제작한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의 전면 LCD 제품으로 우수한 터치스크린 기술에 힘입어 숫자와 메뉴 버튼 등 키패드를 없앴으로써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와 프라다가 제품의 외관뿐 아니라 메뉴 구성, 글씨체, 벨소리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함께 작업을 진행했으며, 양사의 협력 아래 명품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라다폰은 단말기와 함께 파우치, 이어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액세서리에도 프라다 고유의 로고를 새겨 넣어 명품으로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KT-한국MS, 한국기업용 UC서비스 공동개발

KT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 선두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기업용 통합커뮤니케이션(UC: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KT(www.kt.co.kr)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는 5월2일 기업용 UC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과 서버를 IP PBX, IP 센트릭스 등과 결합해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용 차세대 서비스를 말한다. UC를 도입한 기업은 e메일, 인스턴트메시지, 영상·음성 회의, 이동전화, 비즈니스 솔루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이 한 차원 향상된 환경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기업의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팬택계열, 상암동 시대 개막

팬택계열(www.pantech.co.kr)이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신사옥 '팬택계열 R&D 센터'로 본사 이전을 완료, 상암동 시대를 개막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에 위치한 '팬택계열 R&D 센터'는 지상 22층, 지하 5층, 연면적 2만평 규모로 생산 인력을 제외한 2000여 명의 팬택계열 전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팬택계열 R&D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공사를 시작한 지 2



년여 만에 팬택계열의 새로운 동지로 제 기능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본사 이전 작업은 지난 4월19일 채권단의 기업 개선작업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팬택계열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다.

팬택계열은 "서초동과 여의도 등 5개 건물에 분산돼 있던 팬택과 팬택엔큐리텔의 연구소 및 본사 부서를 한 지붕 아래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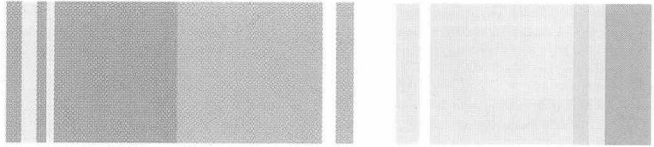


LGT, 청소년·어린이 '콩' 요금제 출시. 문자서비스 요금 절감 기대

LG텔레콤(www.lgtelecom.com)은 고객들의 휴대폰 이용행태를 분석, 문자 이용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콩'이라는 아이콘을 도입한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5월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요금제는 총 3종으로 '콩문자짱'과 '콩조절', 그리고 자녀 위치알림 서비스가 기본 제공되는 어린이 요금제 '콩미니' 등 총 3종이다.

콩문자짱 요금제는 기본료 2만7000원에 2만4000개의 콩과 9만원(문자 건당 30원 기준)상당의 문자 3000건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문자 3000건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2만4000



콩 내에서 경쟁사 대비 최대 1/3 수준의 요금으로 문자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콩조절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1만9500원에 2만5000개의 콩이 제공되며, 문자로만 사용할 경우 최대 7만5000원 상당의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휴대폰, 6년 연속 미국 최고 브랜드 고수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미국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톱 브랜드'의 자리를 6년 연속 지켰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브랜드 조사기관인 '브랜드 키즈(Brand keys)'가 소비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 제품이 고객 충성도가 가장 높은 최고의 휴대폰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5월8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 휴대폰은 2002년부터 6년 연속 '최고 휴대폰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브랜드 키즈의 최고 브랜드로 6년 연속 선정된 휴대폰 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Brand keys'는 1997년부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충성도가 가장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는 권위 있는 브랜드 조사 기관이

자 컨설팅 기관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다양한 기능의 특화 폰으로 미국 휴대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AT&T(옛 싱글리)를 통해 출시된 HSDPA 뮤직폰 '싱크'와 스마트폰 '블랙잭'은 출시 5개월 만에 각각 100만대와 50만대를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뮤직폰과 메시징폰 최고의 히트모델로 떠올랐다. 또 미국 최대 자동차경주대회 나스카(Nascar)의 '나스카 삼성 500' 경기를 단독 후원하는 등 전략적인 현지 마케팅을 통해 미국인에게 삼성 브랜드를 강력히 새기고 있다.



SK C&C,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출시

SK C&C(www.skcc.com)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출시했다.

SK C&C는 5월2일 기존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과 최종 사용자로의 전달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인 'xMA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xMAS'는 자체 통합 엔진을 활용해 분산된 유선상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구조화된 자료 형태로 가공함은 물론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실시간 전환을 가능케 한다.

또 기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무선환경, 데이터 변환 및 처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동하는 부분과 연동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실현 시키는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개발자들의 모바일 환경에 맞는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변환을 가능케 한다.

이밖에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종류의 모

바일 기기를 지원해 신규 모바일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빠르고 쉬운 모바일 확장이 가능하다.



SK텔레콤, UN글로벌컴팩트 가입

SK텔레콤(www.sktelecom.com)은 국내 4대 그룹 관계사로는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활성화하는 국제 협약인 'UN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5월7일 밝혔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권 보호, 노동기준 준수, 환경 보전, 반부패 실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UN글로벌 컴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코피아난 전 UN총장이 제안해 현재 BT·휴폰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30여개 기업·단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4000여 기업·단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제 협약이다.

SK텔레콤은 국내 4대 그룹 관계사로서는 최초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Guideline G3)을 적용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간한 데 이어 UN글로벌 컴팩트에도 4대 그룹 관계사로서는 최초로 가입한 기업이 됐다.

SK텔레콤의 UN글로벌컴팩트 가입은 최근 발표된 바 있는 SK그룹의 지주 회사 전환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표방하는 회사의 노력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세계&C “2010년 IT서비스 톱5 진입”

“오는 2010년에는 매출 8000억원, 이익 1000억원을 올

려 IT서비스업계 톱5에 진입하겠다.”

신세계&C(www.sinc.co.kr)가 4월29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0년 IT서비스 시장 5위권 진입을 선언했다.

이상현 신세계&C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실시간 기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신세계그룹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며 “기존 사업 핵심화와 미래수익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비약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창조적인 사고와 고급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세계&C는 지난 1997년 설립 당시 매출 177억원에 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평균 매출 35%, 영업이익 79%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창립 4년만인 2001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2005억 원을 달성하며 중견 IT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를 다지고 있다.



LG히다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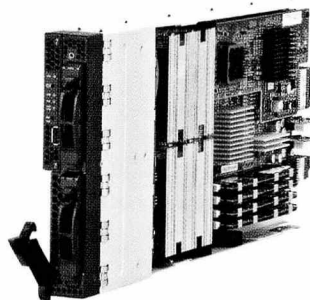
인텔 쿼드코어 CPU 탑재한 블레이드 서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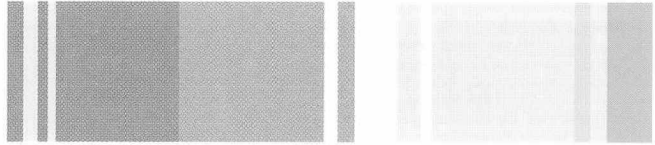
LG히다찌가 블레이드 서버 라인업을 확대하고 블레이드 사업 확대에 나섰다.

LG히다찌(www.lghitachi.co.kr 대표 이기동)는 블레이드 서버인 ‘블레이드심포니 BS320’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블레이드심포니 BS1000’을 출시, 블레이드 서버 시장에 본격 뛰어든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기존 BS1000에 비해 새시 크기는 10U에서 6U로 작아진 반면, 탑재할 수 있는 블레이드 서버는 8대에서 10대





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성능 및 기능, 신뢰성 등이 강화됐다.

또한 인텔 쿼드코어 제온 프로세서를 탑재, 듀얼코어의 제온 프로세서에 비해 동일한 소비전력으로 최대 1.5배까지 향상됐으며 전원이나 FAN 등 공용 모듈의 이중화 구성, 내장 디스크의 핫 플러그 등 메모리의 고신뢰성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전자 '초콜릿폰' 1000만대 돌파

LG전자는 4월26일 여의도 본사에서 안승권 MC사업본부장 주재로 '초콜릿폰 텐밀리언셀러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초콜릿폰이 지난 4월20일자로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돌파해 LG전자 최초의 '텐밀리언셀러'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6개월만에, 그리고 지난해 5월 해외 판매를 시작한 지 11개월만의 성과로, 이에 따라 LG전자의 초콜릿폰은 삼성전자의 '벤츠폰'과 '블루블랙폰'에 이어 '텐밀리언셀러 클럽'에 가입하는 영예를 안았다.



LG전자측은 초콜릿폰의 1000만대 판매에는 '디자인'과 '감성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소비자에 어필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분석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초콜릿폰은 '디자인과 감성마케팅'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며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LG휴대폰의 브랜드 인지도를 성공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전체 휴대폰 사업 수익성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F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에 노키아·10개 이통사 합류

GSM협회(GSM Association)는 KTF가 주도하는 모바일 결제(Pay-Buy Mobile) 프로젝트에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와 보다폰·오렌지·싱텔·SK텔레콤 등 10개 이동통신사가 참여키로 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는 세계 어디서나 상품 등을 구매할 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휴대폰에 탑재되는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인증모듈)·UICC(Universal IC Card)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GSM 협회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추진되었으며 KTF·싱글러와이어리스·차이나모바일·NTT도코모·텔레코어 등 총 14개 사업자가 참여해 왔다.

특히 프로젝트를 제안한 KTF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국내에서 모바일 결제 시연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지도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며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사도 참여한다.

이번 노키아와 10개 글로벌 이동통신사의 가세로 KTF의 모바일 결제 프로젝트는 향후 글로벌 모바일 결제 비즈니스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